

# 대불산단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해야

## 조선업 장기침체...서남권 수출 절반 뚝 수주물량 급감 협력업체 연쇄부도 위기

조선업 장기침체로 위기에 빠진 대불국가산업단지(이하 대불산단)에 대해 정부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정부가 조선업계가 물려있는 경남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것과 관련, 대불산단도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불산단의 A조선 협력업체 30여 곳은 청원서를 내고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계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가산세 감면과 4대

보험 부담을 인하, 정부구제금융 지원"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불산단에 입주한 290여 업체 중 70%는 조선업 관련 업체로, 이중 40여 곳의 조선부품업체는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일보 1월 16일 9면>

한 협력업체 대표는 "산단 입주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조선소는 수주물량이 지난해 55억에서 올해 25억

으로 뚝 떨어져 협력업체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며 "다른 중견 조선소는 2년째 수주 물량이 1건도 없어 부도 위기에 직면한 협력업체가 수십 곳"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31일 낸 서남권 실물지표를 보면, 조선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지난해 11월 대불산단 포함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체 생산액은 3312억 원으로 전년 동월(5599억 원)과 비교해 무려 40.8%나 감소했다. 같은 달 수출액은 95억 원으로 전년 동월(255억 원)보다 62.7%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서남권 수출액도 2억 달러로 전년 동월(3억7700만 달러)보다 46.9%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을 경기 평택,

경남 통영에 이어 세 번째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는 1년 간 105억 원 이상의 정부재원이 투입되고 조선업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A조선 협력업체 관계자는 "비슷한 단위에 포함된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체 생산액은 3312억 원으로 전년 동월(5599억 원)과 비교해 무려 40.8%나 떨어졌다. 같은 달 수출액은 95억 원으로 전년 동월(255억 원)보다 62.7%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서남권 수출액도 2억 달러로 전년 동월(3억7700만 달러)보다 46.9%나 감소했다."

이때 따라 대불산단을 경기 평택,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61.94 (-2.49)	코스닥지수 503.67 (+0.87)	금리 (국고채 3년) 2.76% (-0.02)	원·달러 환율 1089.00원 (+3.50)
--------------------------	-------------------------	------------------------------	-----------------------------

# 지역중소 54% "설 자금 사정 어렵다"

## 광주·전남 120개사 조사...3년 연속 나빠져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60%가 설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연속 나빠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12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벌인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54.1%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9.2%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해 '곤란하다'는 응답이 6.9%포인트 증가해 2010년 이후 자금사정이 잠시 안정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자금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특히 '소기업'(55.9%)과 '수출기업'(53.4%)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웠다.

설 명절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2억 7710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확보 가능한 금액은 1억5670만 원이었고, 부족한 금액은 1억2040만 원에 달했다.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9.2%에 그쳤다.

조사 대상의 60.7%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여금 평균 지급률은 65.0%, 정액으로는 65만8000원이었다. 또 71.4%가 올해 설에 법정 휴일인 '3일'을 월 계획이고 4일 이상 휴무 24.4%, 1~2일 휴무 2.5% 등이었다.

강영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을 앞두고 예년보다 자금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계획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업종별, 규모별 자금지원 실적을 자세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중진공 광주지역본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상봉)가 31일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럽의 경기침체 장기화 및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진공에서 수행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석자 수출기업인 20여 명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수출정보 내실화를 건의하고, 기업 간 교류확대를 위한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아이리스2' 출연 기자자동차가 13일부터 방영 예정인 KBS 드라마 '아이리스2'에 지난해 11월 출시한 더 뉴K7과 K3 등 신차와 K9, K5, 스포티지R 등 전 차종을 대거 등장시킨다. 배우 장혁(왼쪽)과 이다해(오른쪽)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더 뉴 K7과 함께 촬영 중인 모습. (기아자동차 제공)

# BMW '미니' 금호타이어 장착한다

광주産 '엑스타 V700' 공급

금호타이어가 31일 BMW의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의 고성능 모델 '미니 JCW GP'에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최고성능(UHP) 타이어 '엑스타 V700'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미니 JCW GP는 2006년형 미니 GP kit에 이은 2세대 모델로 전 세계 2000대 한정 생산되는 모델.

금호타이어는 미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완성차용 OE(Original Equipment, 신차용 또는 완성차용 타이어) 전용 규격의 타이어 개발을 요청받아 BMW그룹과 제품 개발 연구를 추진했고, 지난해 6월 최종 기술 승인을 받았다.

신형 미니는 엑스타 V700을 장착하고 독일의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슬라이프 서킷(20.81km)에서 이전 모델인 미니 GP 1세대보다 무려 19초 빠른 8분23초로 주파하며 미니 역사상 가장 빠른 모델로 인정받았다. 엑스타는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기술력으로 만든 최고성능 타이어 시리즈로, 고속주행시 다이내믹한 핸들링과 탁월한 제동력은 물론, 저속을 구조 설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한다.

정일택 중앙연구소 상무는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이 유럽의 공장에서 생산된 미니 JCW GP에 장착돼 전 세계 곳곳의 도로를 누비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BMW를 비



BMW 미니 JCW GP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엑스타 V700'이 부착됐다.

롯데 벤츠와 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GM 등 해외 자동차 업체에 완성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LH 실버사원 모집 3.6대 1 경쟁 치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버사원 모집에 1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LH는 28~30일 실버사원 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000명 모집에 1만 1000명이 응시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1일 밝혔다.

LH 실버사원은 만 60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이다. 채용되면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LH 임대아파트 679개 단지 관리소에서 근무한다.

이번 신청자들은 70세 이상이 36%로 가장 많았고 65~69세 34%, 60~64세 30% 등의 순이다. 남성이 69%였고, 여성은 31%였다.

/연필뉴스

# 올 세계 車판매 3.1%↑...성장세 둔화

올해 세계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다는 늘겠지만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박홍재 부소장은 31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에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부진 탓에 글로벌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3.1%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자동차 판매는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바 있다.

미국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전년보다 4.9% 늘어나는 데 그친 1천 520만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는 기저효과, 할부조건 개선에 따른 대기 수요 유입, 일본업체 공급부족 해소 등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한 1천449만대가 판매된 바 있다.

유럽지역 자동차 판매는 1천392만대로 작년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6번째 하락하는 것이다.

신흥국가에서 대규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작년에 비해 0.9% 줄어든 360만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시장의 차량 판매대수는 지난해 대비 7.6% 증가한 2천78만대로 추산됐다. 작년에는 4.3% 늘어난 바 있다.

인도에서도 작년보다 6.3% 신장한 382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내수시장에서는 경기부진 지속 탓에 작년 대비 0.6% 감소한 153만대 판매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점유율은 작년 8.5%에서 올해 9.1%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주요 이슈로 ▲원고-엔저 ▲경쟁업체 체력 지속 ▲중국업체의 세계시장 진출 가속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술혁신 전개 등을 꼽았다. /연필뉴스

# 광양만권 활성화 힘 모으자 8개 기관·단체 합동마케팅 간담회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결집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31일 여수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증대와 항만배후단지내 물류기업 유치 등을 위해 지난 30일 유관기관 8곳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동마케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합동마케팅은 기관별로 각각 추진해 오던 광양만권 마케팅 사업을 통합해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사 설립을 계기로 새롭게 추진돼 왔다. 참가기관은 공사를 비롯해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광양시, 여수·광양·순천상공회의소 등 8개 기관 및 단체다.

이들은 총 3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 및 국내마케팅, 홍보·광고마케팅을 추진한다. 해외마케팅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선대 개편 권한을 가진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운영본부 등을 방면해 설명회 형태로 실시되며 국내마케팅 활동은 해양관광 학습심포지엄, 수출입 물동량 균형을 위한 수입화물 유치활동 등이다.

운동훈 공사 마케팅팀 부장은 "올해 합동마케팅 활동은 부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규 서비스 선사 유치와 국내 화물유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3년** 가발명가!

신제품 기적중얼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미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박1**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